

“Living Hope” (페루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이영찬목사(OC오픈도어교회)

2025년에 이어 올해도 페루의 끝자락 Tacna로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교의 하나님(Missio Dei)께서 펼치시는 선교 현장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금년 단기선교의 주제는 “Living Hope”이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란 찬양곡을 준비하고 매번 훈련 때나 현지에서 사역할 때마다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이 찬양곡은 미국의 찬양 사역자 필 위크햄(Phil Wickham)과 브라이언 마크 존슨(Brian Mark Johnson)이 함께 만든 곡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개봉된 ‘신의 악단(북한의 그리스도인을 다름)’이란 영화의 주제곡으로도 알려진, 이 찬양곡은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영광을 떠나 죄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승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소망 되심을 선포합니다. 매번 찬양할 때마다, 페루 땅에서 온갖 저주와 절망 가운데 사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GP USA 소속으로, 페루 Tacna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인성, 에스터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짧지만 너무도 아름다운 섬김의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단기 선교의 단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1.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사명입니다.

이번 선교가 예년과 다른 점은, 젊은이들이 아닌 40대부터 70대까지의 여성도님들로 팀이 구성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젊은 피가 주축이 되어 단기팀이 꾸려진 반면, 금년에는 순수 아줌마(?) 부대가 출동하였습니다. 단기팀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학업으로 젊은이들의 참여가 어렵게 된 반면, 작년에 참여했던 여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호기로운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6명의 여성도들과 청일점으로 담임목사가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누가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을까?’ ‘현지에서 activity와 program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여러 염려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는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고 ‘애들이 없으니 한갓저서 좋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현지 선교사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일, 어머니의 감성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K-Mom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음식을 통한 섬김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K-food 전략을 통해서 현지인들의 마음 문을 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최근 현지 대학에서 campus ministry를 계획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한국 음식을 통해 교제의 장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과 오랫동안 동역을 해오던 현지 스테프들과 campus사역의 리더들을 초청하여 retreat를 실시했습니다(국경 넘어 칠레에서도 리더들이 참여). 미국에서 한국 음식의 식재료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K-food의 찐한 맛을 보여주었습니다. TV나 Youtube로 보았던 한국 음식(떡볶이, 김밥, 잡채, 불고기, 소떡소떡)을 먹게된 현지 젊은이들의 닫혔던 입이 열리고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녀온 뒤에, 선교사님으로부터 새로운 사역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섬길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되는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엄마들은 인생의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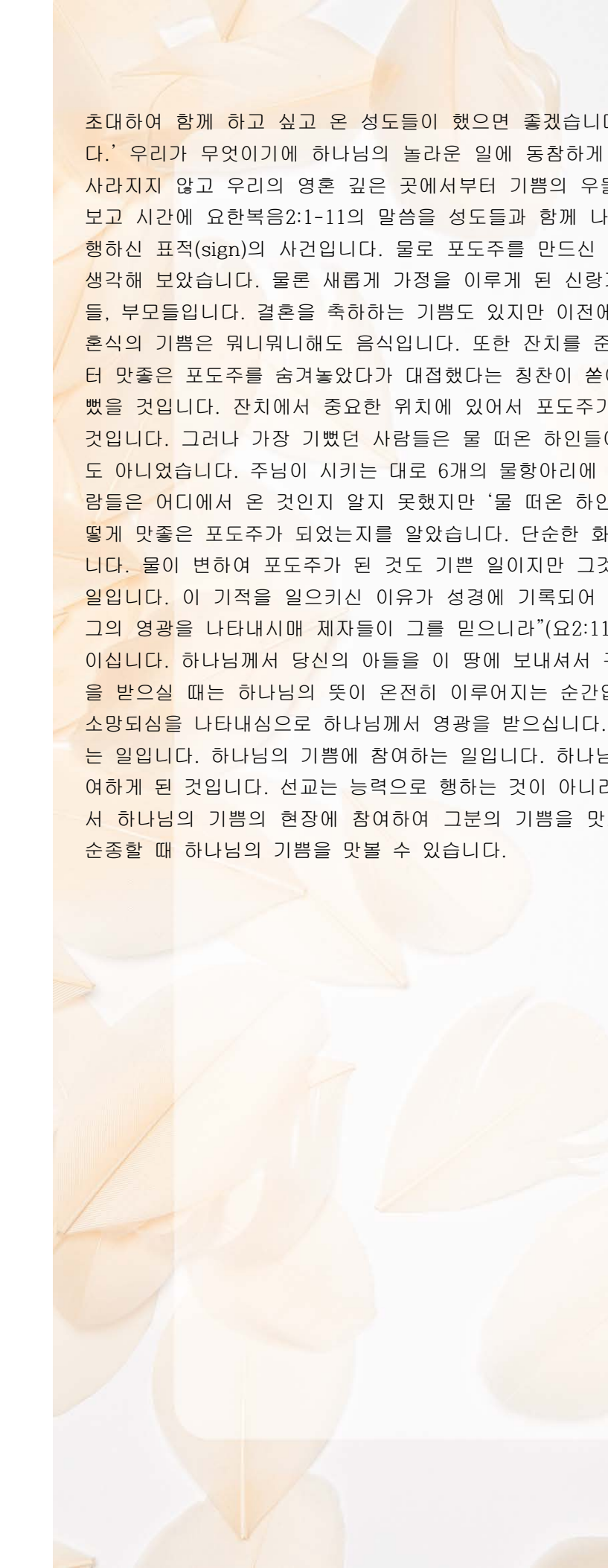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간증을 준비해 왔습니다. 소년원과 바닷가 마을의 교회에서, 대학생 리더들 수련회에서, 그리고 현지 스태프들에게 맞춤의 간증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교는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로도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2. 선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한 편의 완벽한 드라마입니다.

8월2일(주일) 선교팀 파송예배와 함께 오후9:30 항공편으로 페루로 출발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새벽, Latam Air에서 4시간 delay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전날 항공기에서 medical issue가 있어서 승무원들의 휴식이 필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리마행 항공편의 delay는, connection flight의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파송 예배 때 항공편이 지연되었다고 광고하자, 여기저기서 탄식과 한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파송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짐(8개)을 packing하여 서둘러서 공항에 나갔습니다. 일찍 check in하고 공항에 들어가서 출발 전까지 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check in counter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moving box의 짐은 check in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도 box로 가져간 경험이 있어서 packing했는데 가장 중요한 식재료가 들어있는 3개의 짐을 부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알려준 대로 가능한 plastic box에 다시 packing을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주일 저녁이라 대부분의 Home Depot은 오후 8시에 문을 닫고 딱 한 군데만 9시에 close하는 곳이 있어서 공항에 데려다 준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서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민첩함으로 너무도 멋지게 packing하여 짐을 부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선교팀원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온 말이,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4시간 delay시키신 이유를 알았다' 것입니다. 만일 제 시간에 출발했다면, 가장 중요한 식재료 boxes를 가져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비행기를 연착시키심으로 모든 짐을 무사히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4시간 연착의 탄식과 한숨이 변하여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교'라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첫 걸음을 멋지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스릴 넘치는 인도하심에 모두가 exciting되었습니다. 새벽 1시 30분에 출발한 비행기가 리마에 다음 날 오후 12시가 넘는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Tacna행 비행기의 출발 시간은 오후 1시30분, 이 사정을 이야기하자마자 이민국 통과와 세관 통과가 급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또한 숨겨진 하나님의 보너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선 비행기는 출발한 뒤였습니다. 이제는 남은 두 대의 오후 비행기를 타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LA발 Lima행 비행기의 연착으로 인해 국내선을 타기 위해 재booking하려는 승객들로 공항은 시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7명의 좌석이 있어야만 그날 Tacna로 갈 수 있다는 항공사 직원의 말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Daniel이란 직원을 만나게 해주셔서 마지막 비행기인 오후 6시30분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출발한 지 27시간 만에 무사히 Tacna공항에 도착하여 마중나온 선교사님과 현지 스태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007작전을 방불케 한 선교 사역을 위한 공수작전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멋지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개입하시고 정확한 그분의 Time table 가운데 무사히 선교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섬세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Expect the unexpectedness"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다시 한 번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 선교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6박7일의 짧은 단기 선교 일정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은혜는 너무도 크고 놀라워 모두가 벅찬 감동과 감격 속에 아름다운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팀으로 페루에 다녀온 단원들이나 그들을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보고를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음이 감사한 일입니다.' '첫날부터 내년에 또 여기에 와야하는 당위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고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분들을



초대하여 함께 하고 싶고 온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받았습니
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되었는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 기쁨의 여운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의 우물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보고 시간에 요한복음2:1-11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sign)의 사건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혼인 잔치에서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새롭게 가정을 이루게 된 신랑과 신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한 하객들, 친구
들, 부모들입니다. 결혼을 축하하는 기쁨도 있지만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를 마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결
혼식의 기쁨은 워니워니해도 음식입니다. 또한 잔치를 준비하고 총괄했던 연회장이 기뻐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
터 맛있는 포도주를 숨겨놓았다가 대접했다는 칭찬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기
뻐할 것입니다. 잔치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해결함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은 물 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름도 모르고 그다지 중요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6개의 물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것을 떠다 주라 해서 떠다 주었습니다. 사
람들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요2:9). 그들은 물이 어
떻게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는지를 알았습니다. 단순한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임을 알았습
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것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이 너무도 놀랍고 기쁜
일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요2:11)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기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을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요 유일한 우리의
소망되심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참
여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는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페루 단기 선교를 통해
서 하나님의 기쁨의 현장에 참여하여 그분의 기쁨을 맛보는 행복하고 감사한 기쁨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